

통영청년단의 순회상영과 관객의 영화관람(1921-1923)

정충실

도쿄대학교 학제정보학부 박사과정 수료, 영화사·문화사 전공
fugang04@naver.com

- I. 머리말
- II. 1920년을 전후한 시기의 통영
- III. 통영청년단과 활동사진대의 발족
- IV. 활동사진대의 활동과 그 효과
- V. 활동사진대의 영화상영 목적
- VI. 영화상영 환경
- VII. 관객의 영화관람
- VIII. 맺음말

이 글의 IV장, VI장, VIII장은 정충실, 「식민지 조선의 영화관람-상설영화관, 그리고 비상설영화관이라는 공존장」(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 논문, 2009)의 III-1 부분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I. 머리말

1920년대를 전후한 식민지 조선에서는 영화에 대한 다양한 담론이 신문, 잡지에 넘쳐났다. 그러한 신문, 잡지들에서는 영화를 근대 과학기술, 대중을 병들게 하는 독약, 교화의 수단, 대중문화의 총아 등 각기 다른 관점에서 파악했지만 영화에 대한 기사가 많았다는 점에서 당시 사람들에게 영화는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1926년의 『개벽』에서는 당시 영화에 대해 관심이 많은 상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맥드날드가 누군 줄 아느냐?고 무르면 영국 노동당의 수령이라고 대답할 사람이 대중의 속에는 몇 사람이 못 되지만 메라-픽 포드가 누구냐고 무르면 누구든지 자기 친구의 일홈이나 드른 것처럼 미국 활동사진의 명여우라고 반가워한다. 정치로 세계적 인물보다는, 활동사진으로 세상에 일홈이 알려진 사람이 더 만케 된 것이 사실이니 웃지 안어도 활동사진이 더 대중과 친밀성을 가진 까닭이다.¹⁾

위의 기사는 조선인들 사이에서 외국 유명 여배우가 외국의 유명 정치인보다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을 말하면서 이를 통해 당시 조선인들의 영화에 대한 관심이 상당했음을 설명하고 있다.

영화에 대한 담론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영화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만 식민지 시기 조선에서 영화관의 수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일본에서 발행된 『영화연감(映畫年鑑)』에 의하면 1928년 식민지 조선 전체의 영화상설관 수는 30관에 불과했고 경성에 8관, 평양에 4관, 부산 3관, 대구 3관, 인천 2관 등 대부분이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영화관이 있는 지역은 14곳에 불과했다.²⁾ 일본의 영화잡지사인 『키네마준보(キネマ旬報)』의 1935년 조사를 보더라도 조선에서 영화관 수는 48관으로 증가하기는 하지만 역시 이전처럼 도시지역에 영화관이 집중되어 영화관이 있는 곳은 22개 지역에 머물렀다.³⁾ 이렇게 영화관이 소수의 도시지역에만 들어서 있고 상당수의 인구가 영화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1) 「활동사진 이야기」, 『별건곤』 2(경인문화사, 1926), 90쪽.

2) 映畫通信社, 『映畫年鑑』(映畫通信社, 1928), 302-303쪽.

3) 調査部, 「全國映畫館錄」, 『キネマ旬報』 536(キネマ旬報社, 1935), 233쪽.

영화관이 없는 곳의 주민은 상업영화를 쉽게 접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그들이 영화를 전혀 접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다. 영화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상황에서 영화관이 없는 곳에서는 오히려 동원, 교화, 위안 등을 목적으로 비상업적 영화를 용이하게 상영할 수도 있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일본에서 순회 교육영화상영으로 유명했던 오사카 마이니치(大阪毎日) 신문사가 조선 각 지방을 순회하면서 영화상영을 하였고⁴⁾ 총독부 역시 활동사진반을 조직해 각 지역을 순회하며 영화를 상영하였으며 직접 제작하기도 하였다.⁵⁾ 이 외에 철도국이나 지방관청이 위안과 기부 등의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기도 하였다.⁶⁾

영화관은 일부 도시에만 있어 조선인 중 일부만 영화관에서 상업 영화를 관람할 수 있고, 이 외의 지역에서는 비상업적 목적의 영화가 다양한 세력에 의해 영화관 이외의 장소에서 상영되던 상황인데도 기존의 1945년 이전 시기의 한국영화사 연구는 식민지 조선에서 제작된 상업영화와 도시의 영화관, 그 관객에 집중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선행연구들은 총독부의 활동사진반 조직이나 활동, 언론사의 뉴스 영화 제작, 상영, 프롤레타리아 예술단체인 카프의 영화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⁷⁾ 그러나 이 외에 다른 비상업적 목적의 영사회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고 이 선행연구들은 영사주체와 제작주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만 관객이나 그들의 관람 양상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에서는 비상업적 목적의 영화상영이었던 통영청년단의 순회영사회에 관해 설명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영사주체인 통영청년단 활동사진대의 활동에 관해서만 설명하지 않고 통영청년단이 순회영사를 실시할 수 있었던 지역적·시대적 배경에 대해 살피고 관객의 관람 양상과 그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하려고 한다. 이 연구는 기존의

4) 《매일신보》, 1915년 9월 20일자.

5) 《매일신보》, 1921년 2월 18일자; 《매일신보》, 1921년 3월 21일자.

6) 《매일신보》, 1916년 6월 1일자; 재철원 기자, 「철원잡신」, 『개벽』 41(개벽사, 1923), 99쪽.

7) 복환모, 「1920년대 조선총독부 활동사진반의 역할에 관한 연구」, 『영화연구』 24(2004); 김정민, 「1920년대 초반 조선총독부의 활동사진에 대한 인식과 활용에 대하여: 영화의 적극적 이용 정책의 성립과정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27(2008); 함충범, 「중일전쟁 이후 식민지 조선에서 뉴스영화 연구(1923-1941)」, 『한국민족문화』 49(2013); 변재관, 「1930년대 전후 프롤레타리아 영화 활동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0); 이효인, 「일제하 카프 영화인의 전향논리연구」, 『영화연구』 45(2010).

한국영화사 분야에서는 별달리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도시 영화관이 아닌 비상업적 목적의 영화상영과 관람에 대해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통영청년단 활동사진대 설명을 통해 민족운동이나 청년단 연구⁸⁾에서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대중문화를 이용한 사업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II. 1920년을 전후한 시기의 통영

경상남도 남해안에 위치해 예로부터 어족자원이 풍부했던 통영은 수산어업이 발달한 지역이었다. 《동아일보》 1926년 11월 28일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수산어업의 발달로 인해 통영항에 출입하는 선박 수가 조선 전체에서 2위였다. 『통영시지』에 의하면 1914년 이출입 총액도 경남지역에서는 부산항 다음으로 많았다고 한다. 이로 인해 이 시기 통영은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 여건이 좋은 편이었다고 한다.⁹⁾ 주민들 스스로도 거부(巨富)는 없더라도 통영은 삼남지방의 대표적인 부호지라거나 부력(富力)으로는 여타 중소도시보다 우수하다고 인식하였다.¹⁰⁾ 경제적 여건이 좋았기 때문에 일본으로의 유학생도 많았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 지역 출신 시인 유치진은 도쿄 유학 후 다른 유학생, 엘리트 청년들과 함께 연극단체인 토성회(土聲會)를 조직하기도 하였고¹¹⁾, 1921년 12월 11일 《동아일보》에 의하면 이 지역 출신 일본 유학생들이 통영에서 따로 학예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기 때문에 1920년대 통영의 인구증가 속도는 빨랐는데 1924년 6만 8,000여 명에서 1934년에는 8만 4,000여 명으로

8) 통영청년단에 관한 연구로 김승, 「1920년대 경남지역 청년단체의 조직과 활동: 청년연맹 결성을 중심으로」, 『지역과역사』 2(1996); 김상환, 「1920년대 통영지역 청년운동과 김기정 정토운동」, 『역사와 경계』 91(2014)이 있다. 이 연구들은 통영청년단의 조직, 활동, 내부 대립과 갈등, 특정 저항운동의 전개와 효과를 다루고 있지만 통영청년단의 대중문화 이용이나 활동사진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9) 통영시사편찬위원회, 『통영시지』 상(통영시사편찬위원회, 1999), 307쪽, 1217쪽.

10) 박형균, 『통영사연구회 4집-통영안내』(통영사연구회, 2008), 71쪽; 《동아일보》, 1921년 11월 11일자.

11) 통영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420쪽; 충무시지편찬위원회, 『충무시지』(충무시지편찬위원회, 1987), 1091쪽.

증가해 이 기간 동안의 인구증가율은 24% 정도였다. 같은 시기 조선 전체의 인구는 1,900만 명에서 2,100만 명 정도로 증가해 10% 남짓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통영 인구증가 속도가 상당히 빨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이주 일본인 비율도 상당히 높았는데, 1924년 조선 전체 인구에서 일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0.2%에 불과한 반면 같은 시기 통영 인구에서 일본인 비중은 4%였고 특히 시가지인 통영읍에서는 16%에 이르러 수산어업의 발전으로 이주 일본인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많았음을 알 수 있다.¹²⁾

1915년 《남선일보(南鮮日報)》 통영지국에서 발행한 『경남통영안내(慶南統營案內)』라는 책에 의하면 통영으로의 일본인 이주는 러일전쟁 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이주 일본인들이 1906년에 항내 1만 평을 매수해 해안선을 정비하고 매립하여 시가지를 개발했고 1910년에는 개발한 시가지에 은행, 회사, 학교, 병원을 설립하였다고 한다.¹³⁾ 이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이주 일본인 40명이 조합을 조직해 봉래좌(蓬萊座)라는 극장을 만들었는데 통영에 유일한 오락장으로, 경남지역에서는 봉래좌를 포함해 극장이 1910년대는 2개, 1920년대는 4개밖에 없어 통영에는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극장이 설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극장에서는 주로 일본인들을 위한 공연이 행해졌으나 종종 영화도 상영되어 조선인들도 영화를 감상할 수 있었다.¹⁴⁾ 그리고 시가지와 가까운 지역에 1910년대 후반부터 1920년대에 걸쳐 히로시마(廣島), 오카야마(岡山) 현에 의해 이주 어업 기지가 건설되어 일본 어민들의 집단이주가 실시되고 그곳에는 주택단지, 학교, 우편소 등이 조성되었다. 협동조합도 만들어져 조선인과 어장을 공유하고 어획물을 공동 판매하기도 하였다고 한다.¹⁵⁾

이렇게 통영은 일본인 인구 비중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높아 조선인은 일본인이 건설한 시설을 이용하기도 했다. 또한 조선인과 일본인은 경제활동에 협동을 하기도 하였지만 민족 간 대립도 많았다. 조선인의 경우 어업권 허가가 쉽지 않은 데 반해 일본인 한 사람이 손쉽게 몇 개를 얻기도 해 어업권에 대한 조선인들의 불만이 상당하였다.¹⁶⁾ 일본인

12) 朝鮮總督府, 『統計年譜』(조선총독부, 각년판); 박형균, 앞의 책, 71쪽, 97쪽, 98쪽.

13) 山本精一, 『慶南統營郡案內』(南鮮日報統營支局, 1915), 58쪽.

14) 위의 책, 71쪽; 《동아일보》, 1922년 10월 26일자.

15) 김준, 『전형화 과정을 통해서 본 이주민의 거주공간에 관한 연구: 일본인 통영지역 이주 어촌 사례를 대상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9), 50-55쪽, 72쪽.

측에서 1915년 발행한 『경남통영군안내(慶南統營郡案內)』에서는 통영지역 조선인의 성미가 어느 지역보다 거칠어 일본인의 토지, 가옥 매입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면서 1907년에는 조선인이 이주 일본인들을 습격해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폭동은 일본 육군의 진압에 의해 진정이 되었다고 한다. 계속해서 이 책에서는 조선인 주민의 저항이 심한 이유가 조선시대 이 지역에 삼도수군통제영(三道水軍統制營)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삼도수군통제영은 임진왜란 이후 설치되어 통영은 이때부터 군사도시로 발전했으며, 조운선과 화물선 출입도 잦아 경남지방 해운의 중심지 역할을 했는데¹⁷⁾, 조선시대 이후 이러한 전통이 통영의 조선인이 일본인 침투에 강하게 반발하게 한 이유라고 보았다. 교육 면에서도 민족 간 불평등이 있고 이에 대한 조선인들의 반발이 있었는데, 통영지역 인구가 급증하여 취학 연령 아동도 증가하지만 이에 맞춰 학교는 증가하지 않아 지역사회에서 입학난이 증대한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인구는 조선인이 많은데도 조선인 학교가 일본인 학교보다 적어, 1914년 통영 전체에서 일본인 소학교는 11개였으나 조선인 소학교는 3개에 불과했다.¹⁸⁾ 이에 통영 주민들은 사립학교 설립에 관해 봉래좌 등에서 토론회를 열고 통영군과 교섭을 벌이기도 하였으며 결국에는 경성 총독부까지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조선인 학교 설립은 번번이 좌절되었다.¹⁹⁾

즉, 통영은 어족자원이 풍부해 수산업이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 이주 일본인이 많고 이로 인해 통영 시가지가 개발되고 일본인이 개발하거나 참여한 선진적 시설을 조선인이 이용할 수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조선인은 민족적 차별을 겪어야 했다. 이러한 민족적 차별에 통영의 주민들은 폭동을 일으키거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 저항했다.

16) 박형균, 앞의 책, 88쪽.

17) 문화재청, 『구통영청년단회관: 기록화조사보고서』(문화재청, 2004).

18) 통영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309쪽.

19) 《동아일보》, 1922년 4월 25일자; 《동아일보》, 1922년 5월 15일자.

Ⅲ. 통영청년단과 활동사진대의 발족

1919년 3·1운동 이후 조선인들에게 불완전하나마 집회, 결사가 보장됨에 따라 이 시기에는 각종 사회단체들이 전국에서 활발하게 조직되었다. 어떠한 사회단체보다 청년단체의 설립이 두드러졌는데, 박철하에 의하면 그 이유는 당시 사회가 청년들에게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변화시킬 역사적 소명을 부여하는 상황에서 1910년대 구락부나 수양회, 각급 학교, 동창회 등을 통해 청년들이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3·1운동을 거치면서 청년들은 독립운동을 경험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3·1운동이 실패하면서 독립을 위해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력양성과 문화향상이 필요함을 절감했던 것도 청년단 설립의 중요한 이유였다.²⁰⁾ 청년단의 주력 사업은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실력양성운동과 문화향상운동이었는데 실제로 이예숙에 의하면 광주에서는 대중교육과 이를 위한 토론회, 강연회 개최와 물산장려운동이 행해졌고 김일수에 의하면 예천 지역에서는 신교육보급, 풍속개량, 민립대학 설립운동이 행해졌다.²¹⁾ 1920년대 초반까지 청년단의 주된 참여계층은 엘리트와 지식인 계층이었는데, 192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노동운동가, 사회주의자 등도 참여하면서 사업 내용이 노동운동이나 계급투쟁으로 확대되어 갔다.²²⁾

3·1운동 이후 전국적인 청년단 조직 움직임 속에서 통영에서도 청년단이 조직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이주 일본인이 많아 민족적 차별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한 저항의 경험이 많아 어떤 지역에서 보다 통영지역에서 청년단의 조직은 자연스러웠다고 할 수 있다. 통영청년단은 1919년에 조직되었는데 조직의 중심인물인 박봉삼, 송정택, 여병섭 등은 기독교 청년회 회장, 향교 장의, 《동아일보》 분국장으로 통영지역의 지식인, 유지계층이었다. 《동아일보》 1921년 8월 21일 기사에 의하면 통영청년단 조직원이 소집되었는데 이때 각지로부터의 유학생들이 다수 참석했다는 것을

20) 박철하, 「청년운동」, 『한국사』 49(국사편찬위원회, 2001), 358-375쪽.

21) 이예숙 「1920년대 전남 광주 지방의 청년 운동」, 『한국근현대 청년운동사』(풀빛, 1995), 244-245쪽; 김일수, 「1920년대 경북지역 청년운동」, 『한국근현대 청년운동사』(풀빛, 1995), 277-281쪽.

22) 박철하, 앞의 논문, 275쪽; 이예숙, 위의 논문, 247쪽; 김일수, 위의 논문, 282쪽.

통해서도 통영청년단에는 지식인 계층이 많이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영청년단은 단장-부단장 아래 지덕부, 덕육부, 체육부, 총무부, 평의회의 조직기구를 두었다.²³⁾ 《동아일보》 1920년 4월 18일, 1920년 6월 11일, 1921년 11월 11일 기사 등에 의하면 통영청년단은 야학 운영, 법률지식 교육을 위한 강습회 개최, 사회풍속 개량, 물산장려운동 등에 관한 사업을 행했는데, 통영청년단의 주력 사업은 당시 다른 지역의 청년단과 유사하게 실력양성이나 문화향상운동이었음을 알 수 있다.

통영청년단의 활동이 다른 지역의 청년단과 구별되는 점은 활동사진대를 조직해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영화상영회를 개최하였다는 점이다. 통영청년단이 이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경제적으로 풍족했다는 것에 큰 이유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영사기나 필름의 구입, 영사회 개최에는 많은 자금이 요구되어 젊은 청년층의 힘만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지역의 재력가들이 무이자로 자금을 대출해주어 통영청년단은 오사카에 건너가 영사기와 필름을 구입할 수 있었다.²⁴⁾ 또한 통영 주민들이 다른 지역보다 일찍 영화를 접할 수 있었던 것도 활동사진대를 조직할 수 있었던 중요 이유라 할 수 있다. 1920년의 시기는 아직 조선에서 영화가 대중화되지 않은 시기로 경성에도 영화관은 8개밖에 없고²⁵⁾ 경남지역에도 영화상영과 공연을 행하는 극장이 극소수의 도시를 제외하면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통영은 중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주 일본인이 많아 이들에 의해 1914년에 봉래좌(蓬萊座)라는 극장이 세워져 영화가 상영되고는 하였다. 조선의 엘리트들은 봉래좌에서 영화를 접하면서 영화의 매력이나 선전효과를 빨리 깨달았다고 할 수 있다. 《동아일보》 1921년 5월 8일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년단 활동사진대가 필름을 구입해 최초로 영화를 상영한 곳이 봉래좌였는데, 이를 통해 청년단원들이 이전부터 봉래좌에 출입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이 지역 조선인 청년 중에는 일본 유학생이 많았다는 것도 다른 지역 청년단보다 영화의 이용가치를 먼저 깨닫게 하고 청년단이 영화를 적극 이용하게

23) 이상 통영청년단에 관해서는 문화재청, 앞의 책, 28쪽; 김승, 앞의 논문; 김상환, 앞의 논문을 참조했다.

24) 《동아일보》, 1921년 5월 2일자.

25) 迷迷亭主人, 『京城キネマ界漫歩』, 『朝鮮及滿州』 1924-4(朝鮮及滿州社, 1924), 169-171쪽.

한 이유일 수 있다. 실제로 활동사진대의 대장이었던 박봉삼과 오사카에서 필름과 영사기를 구입한 방정표는 일본 유학생 출신이었다.²⁶⁾

IV. 활동사진대의 활동과 그 효과

순회상영은 주로 1921년에서부터 1923년에 걸쳐 행해졌는데, 1921년에는 통영에서 영사회를 시작해 진주·경성·평양·개성·인천·해주·수원·청주·강경·이리·대구 등 경상도,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 전라도의 주요 도시지역에서 영사회를 개최하였다. 1922년, 1923년에는 이와는 달리 남해·하동·광양·보성·영암·남원·거창·함안·경산·경주 등 주로 경상도와 전라도의 농촌지역을 방문하여 영사회를 개최하였다.²⁷⁾

통영청년단의 순회영화 소식은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보》 등의 신문에 자주 소개되었는데, 특히 《동아일보》에는 한 달에 수차례씩 기사가 실리기도 하였다. 1921년 8월 1일자 《동아일보》는 진주에서 영사회를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경상남도 통영청년단에서는 우리 사회의 교육이 남보다 뒤져서 지식에 주리고 암흑에 병드려 헤매는 우리의 처지를 감히 유감으로 역이어 무쇠를 녹일 듯한 더위에도 오히려 도라보다 안코 또한 무서운 시험을 무릅쓰고 우리도 남과 가튼 문명향복의 공동생활을 누리고저 하는 열심으로 활동사진기계를 사드려 전 조선지방을 순회 흥행하야 [...] 이십육일 팔시 오십분에 진주가설극장에서 쏘다지는 박수소래 가운데에서 희극 한 편을 비롯하여 무대의 첫막이 열니었다. 후원단체 대표 남홍 씨의 소개로 통영청년부단장 김덕준 씨의 간단한 취지설명이 잇는 후 불란서 파리 녀자 참정권 운동을 비롯하여 십여종의 실사가 끝난 후 전 오권으로 된 단편의 영사가 잇섯는데 때때로 이라나는 박수의 소래는 적막한 밤의 공기에 만흔 파동을 주었다. 그 이튿날에는 강정의 주인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다. 제1권으로부터 영사를 비롯하여 제2권이 끝나매 입장하였던 경관으로부터 풍속괴관할 넘려가 있다고 돌연히 중지명령을 하얏슴으로 부득이 어제 저녁에 한 것을 다시 하였다. 이에 이르러 관중은 모도 다 불쾌한 괴색을 띄우고 잇섯슴은 한가지 유감이라 할 만하겠더라. [...] 동일행은 이틀간 진주에서 흥행하고 그의 실비를 제한 남은 돈은 진주 제일, 제이, 제삼 야학교와 부인야학교의

26) 문화재청, 앞의 책, 29쪽.

27) 《동아일보》, 1922년 5월 12일자; 《동아일보》, 1923년 10월 30일자.

네 군데에 불소한 돈을 기부하고 [...] 진주중학교 기성회에서는 동일행을 이십륙일 오후 육시에 경남관으로 초대하여 만찬회를 개최하였고 후원단체에서는 동일행을 이십칠일 오후 십이시에 대성관으로 초대하여 성대한 송별연이 있섯다더라.

중소도시의 일개 청년단의 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동아일보》는 간략하게 단신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 영사회 개최의 목적, 영사회 진행 절차, 관객의 분위기, 경찰의 방해, 통영청년단과 지역단체와의 협력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아일보》 외에 《매일신보》와 《조선일보》 등도 통영청년단의 순회영사회 소식을 빈번히 소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매일신보》는 1921년 8월 13일과 8월 14일, 1923년 7월 24일 기사에서 각각 대구, 경성, 곡성에서의 영사회 상황을 전하고 있으며, 《조선일보》는 1921년 8월 27일, 1921년 8월 30일, 1923년 7월 18일 등의 기사에서 인천, 개성, 곡성에서의 영사회 소식을 전하고 있다.

1923년 경남지역에만 79개의 청년단체가 존재하는 등²⁸⁾ 전국적으로 각 지역에는 많은 청년단이 조직되고 각각의 청년단은 강연회나 야학 등의 활발한 활동을 했지만 통영청년단의 영사회만큼 각 신문사로부터 조명을 받고 관심의 대상이 된 청년단의 활동은 드물었다. 통영청년단의 활동사진대가 많은 관심을 받고 소식이 신문에 자주 실릴 수 있었던 것은 서론에서 언급되었듯이 대중들 사이에서 영화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이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통영청년단의 영사회를 알리는 기사에서는 활동 목적이 문화향상, 교육사상 고취나 민족 교육시설 설립, 지원 활동 등임을 명확히 했다. 위에 인용된 기사에서도 순회영사회 개최의 목적이 교육수준 향상이라 명시하고 있고 상영 수익을 민족교육기관에 기부했다는 것도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들은 조선인의 교육수준 향상의 필요성, 민족교육기관 설립·지원 필요성을 상영장에 모인 관객을 넘어 신문 독자들에게도 알렸던 것이다. 《동아일보》 1922년 4월 29일 기사에서 경찰의 방해공작에 관한 내용이나 위에 인용된 기사 속의 일제에 의한 상영 중지에 관련된 내용은 신문 독자들에게 일본 경찰의 폭력성을 알리고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민족교육기관 확충과 민족

28) 문화재청, 앞의 책, 26쪽.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선 전체 청년단의 활동 목적과 일치하는 바이기도 했다. 즉, 통영청년단 활동사진대는 신문에 자주 보도됨으로써 영사회에 참여한 관객을 넘어 전 조선인을 상대로 조선 전체의 청년단 사업 내용을 널리 알렸던 것이다.

통영청년단은 관객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관람료를 지역의 민족교육기관 지원과 설립에 사용했다. 예를 들면 《동아일보》 1921년 9월 27일 기사에 의하면 강경에서는 수익금 280원 50전 중 영화상영에 사용된 금액을 제하고 절반인 140원을 교육시설에 기부하였고, 같은 신문 1921년 9월 9일 기사에서는 경성 영사회에서의 수익금은 종로중앙유치원에 기부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같은 신문 1927년 7월 3일 기사에서는 군산 기독교청년회가 설립한 영신학원에 조성된 기본금 600원은 통영청년단 영사회에서의 수익금으로 충당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관객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민족교육기관의 설립과 지원에 이용하는 것은 민족교육을 확대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관객인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에서 민족교육기관 설립과 지원의 필요성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영화를 관람하는 행위를 지역의 교육 문제 해결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었다. 이는 민족교육 확대라는 청년단의 사업에 지역주민을 참여시키는 것이기도 했다.

앞에 인용된 진주에서의 영사회 개최 기사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영사회를 개최할 때는 지역 청년회를 비롯한 다양한 민족 단체로부터 후원을 받고 그들이 영사회 개최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방문지역의 청년회가 활동사진대원들을 위해 만찬회를 열어주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상호 간에는 많은 소통과 의견 교환이 가능했다. 《동아일보》 1921년 9월 8일의 기사에 의하면 해주지역 영사회에서도 영사 전 이 지역의 청년회, 교육연구회, 여자청년회, 천도교 청년회가 통영청년단과 오찬을 하고 영사회 개최에 이들 단체가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한다. 이 외에 별교, 평양 등에서의 통영청년단 활동사진대 활동에 관한 대부분의 다른 기사들도 지역청년회, 민간단체와의 교류, 협력을 언급하였다. 하나의 단체가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단체가 참여했다는 것은 영사회를 통해 통영청년단과 지역 단체가 연결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다양한 단체들 간에도 교류, 협력이 행해지도록 했음을 의미한다.

《동아일보》 1922년 10월 31일의 기사에서 보듯이 무안지역 상영회에

서는 영화상영 전 영사회 개최에 참여한 이 지역 민족단체가 소개되고 영화상영 중간에는 지역 민족단체 관계자의 강연이나 합창이 행해져 이들이 지역주민 앞에 나설 수도 있었다. 진주에서도 영사회 개최 전에 지역 민간단체의 영사회에 대한 설명과 소개가 있었다. 이때 관객인 주민은 지역 민간단체의 공연을 즐기고 그들을 반겼다고 한다. 이는 각 지역의 주민에게 각 지역 민간단체를 널리 알리고 지역주민과 민간단체가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도 했다.

요약하면 통영청년단의 영사회 개최를 통해 조선 전체 청년단의 활동과 목적이 영사회 참여 관객만이 아니라 신문을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었고, 각 지역 청년단체, 민간단체들이 상영회에 참가하여 지역에서 각 단체들이 협력을 강화하고 이들이 주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었던 것이다. 즉, 결과적으로 통영청년단 활동사진대는 조선 전체 청년단, 지역 민족단체의 선전기구의 역할과 각 지역의 민족단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행한 것이다.

V. 활동사진대의 영화상영 목적

통영청년단 활동사진대의 순회영사가 조선 전체 청년단의 선전과 각 민족단체 간의 소통이라는 효과를 가져왔고 통영청년단도 이를 위해 순회영사회를 개최했겠지만, 순회영사회 개최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설정된 것은 조선 대중의 교육과 교화였다. 《동아일보》 1921년 7월 6일, 1921년 9월 11일 기사에서는 순회영사회 개최의 목적이 문화향상, 교육사상 고취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여기서 문화향상이란 단순히 영화를 접해보지 못한 관객을 상대로 영화라는 신기술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통해 달성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 1923년 9월 22일 기사에서는 통영청년단이 문화를 선전하고 교육을 장려하며 가정교육상 모범적 미풍양속과 권선징악을 권장할 취지하에 순회홍행을 행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조선 대중에게 영화를 접할 기회를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화 속에 재현되고 있는 미풍양속과 권선징악 같은 질서, 이데올로기를 관객에게 교육, 교화시킬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상영 영화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구십(九十)과 구(九)〉, 〈지무와 애견(愛犬)〉, 〈회오(悔悟)의 광명(光明)〉, 〈강정(強情)의 주인(主人)〉, 파리 여자 참정권 운동에 관한 실사 등인데 《동아일보》 1921년 8월 30일, 1921년 9월 9일 기사에서는 〈지무와 애견〉은 교육영화라 설명하고 있으며, 나머지 영화도 사회극이나 인정극의 극영화이나 교육적이고 예술적인 영화로 조선의 상황과 관련이 깊다고 설명하고 있다. 《동아일보》 1922년 5월 12일 기사에서도 영화는 교육, 위생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선택된 영화가 단순히 흥미 위주의 영화가 아니며 교육적 내용의 영화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도 순회상영회 개최의 목적은 조선 대중에게 영화나 영상기술을 접할 기회를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화 속에 재현된 질서, 이데올로기를 교육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교육, 교화를 위해서는 강연, 출판물 등의 다양한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영청년단이 더 많은 경비와 수고가 필요한 영화를 선택한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잡지 『별건곤』에서는 “여기서도 활동사진, 저기서도 활동사진”이 이용되어 “세상은 활동사진의 세상이 되고 말았다”고 하면서 “이는 대중의 생각을 지배하는 데 활동사진이 큰 힘을 가진 것을 알게 된 까닭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²⁹⁾ 이는 대중의 생각을 지배할 만큼이나 교육, 교화수단으로 영화의 효과가 우수하기 때문에 영화가 여기저기서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하는 내용이다. 통영청년단 역시 영화가 교육, 교화수단으로 어떠한 것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용했던 것이다.

영화가 교화수단으로 효과적인 이유는 영화 속에 구현되고 있는 가상 세계, 질서를 관객으로 하여금 실제적이고 중립적인 것으로 믿게 하는 것에 있다. 여기서 영화 속 세계는 상영 주체가 교화하고자 하는 바를 재현하고 있는 세계일 것이다. 이는 영화상영을 통해 상영 주체가 교화하고자 하는 바를 재현하고 있는 세계를 관객은 실제적이고 중립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관객이 영화 속 세계를 중립적이고 실제적으로 감각할 수 있는 이유는 보드리(J. L. Baudry)의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³⁰⁾ 보드리는 스크린에 비추어지는 영상이 만들어지는 것임에

29) 「활동사진 이야기」, 『별건곤』 2호(경인문화사, 1926), 90쪽.

30) J. L. Baudry, “Ideological Effect of the Basic Cinematographic Apparatus,” *Film*

도 불구하고, 만들어지는 방식(현실감을 창출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은폐함으로써 관객은 영화 속 가상공간을 실제적인 것처럼 감각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은폐의 구체적 예는 텍스트 내부적 측면으로는 극적 내러티브 구조나 관객을 시각의 중심에 위치시키는 원근법, 연속적 편집, 관객의 시선·등장인물의 시선·카메라의 시선의 일치 등이 있다. 상영·관람 환경의 측면에서는 영화관에서 관객을 고립시키는 어둡고 조용한 객석, 영상을 만들어내는 영사기기의 은폐 등이 있다. 즉, 이러한 장치들로 인해 관객은 스크린에 비춰지는 영상은 특정 장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는 동안 이 사실을 잊고 영화에만 집중해 마치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감각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객은 영화 속에 재현되고 있는 질서나 이데올로기 등을 자연스럽게 중립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내면화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영화는 효과적 교화수단이 되는 것이다.

VI. 영화상영 환경

통영청년단이 영사회를 개최한 중요 목적은 조선대중의 교육과 교화임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청년단의 영사회 개최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기 위한 상영환경이 갖추어졌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이미 언급했지만 관객이 영화 속 세계를 실제처럼 감각하기 위해서는 영화 텍스트만이 아니라 조용한 객석이나 영사장치의 은폐 등의 상영환경이 갖추어져 관객이 영화 속 세계에 빠져들 수 있게 해야 한다.

우선 1921년의 1차 순회지역인 도시지역에서의 상영환경에 대해 알아보자. 《동아일보》 1921년 9월 20일자 신문에서는 1921년 9월 14일 청주 상영회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하오 8시에 개막한 바 [...] 청주청년회장 유세면 씨 사회하에 대장 박봉삼 씨가 등단하여 현금 우리 사회에 부족한 것이 많음은 [...] 열변을 토하여 일반회중으로

Quarterly 28-2(1975).

하야금 만흔 늦감을 주었다. 이에 사진의 영사를 시(始)한바 [...] 실사 등을 필한 후 청구청년회원 중 이정현군의 아름다운 바이올린 독주가 유(有)하야 만흔 환영을 받았으며 [...] 방당한 청년남녀의 마음을 깨우쳐줄 만한 사진 등이 역유(亦有)하여 관중은 박수가 연속부절(不絶)하는데 하오 12시에 폐하얏고……

위의 기사를 통해 상영장에서는 요즘 영화관과는 달리, 장편 영화 한 편만 상영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성격의 여러 편의 영화가 상영되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영화상영 이외에도 영화상영 전에는 활동사진 대장의 강연이 있고 영화상영을 전후하여 연주가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복수의 영화가 상영되고 강연과 연주가 있었기 때문에 저녁 8시에 시작된 상영회는 밤 12시나 되어야 끝날 수 있었던 것이다. 다른 1차 순회 상영지인 진주에서는 청주와 같이 연주, 공연은 없었지만, 영화상영 도중 활동사진대 부단장의 강연이 있고 실사영화, 장편영화 등 여러 편의 영화가 상영되었다.

《동아일보》 1922년 10월 31일 기사에서는 2, 3차 순회지인 농촌지역 중 무안에서 행해진 영사회 상황을 아래와 같이 전하고 있다.

통영청년단 활동사진대 6명이 10월 10일 무안에 내착하여 [...] 공립보통학교 내에서 하오 8시반 이도헌 씨 사회하에 오륜의 자각과 회오의 광명을 흥행한바 간간 당지 청년회 여자강습생 및 기독교여학생의 합창……

역시 영화만 상영된 것이 아니라 영화상영 전, 상영 사이에 설명이나 합창 등의 공연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시에서는 가설극장이나 회관 등 실내에서 상영된 것에 반해 농촌지역에서는 주로 야외에서 상영되었다. 바로 위의 인용문에서도 학교에서 상영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몇백 명을 넘는 관객은 교실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학교 운동장에서 상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른 농촌지역의 영사회에서도 교회 앞마당, 학교 운동장, 논밭 등의 공터에서 영화가 상영되었다.³¹⁾ 이와 같은 야외 상영장에는 정해진 관람석이 존재할 수 없고 영사실, 스크린, 관람공간이 분리되지 못해 영사장치가 은폐될 수 없다. 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야외 상영이라 입장할 수 있는

31) 《동아일보》, 1922년 10월 6일자; 《동아일보》, 1923년 10월 20일자; 《동아일보》, 1923년 10월 23일자.

인원제한도 없어 통영군 용남면 상영에서는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입장하였다고 한다.³²⁾ 1923년에는 총 161회 순회영사회를 개최하여 총 관객 수가 9만여 명이었다고 하는데³³⁾, 이는 1회 상영장 평균 관객 수가 500-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평균적으로도 입장인원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영화상영 전후에 합창, 독창, 강연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화상영 중에도 영화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조선일보》 1923년 9월 22일 기사에 의하면 포항에서의 상영회에서는 포항 청년단회장의 활동사진대에 대한 소개, 설명이 있는 후, 통영청년단 활동사진대장의 영화에 대한 개요 설명이 있었다고 한다. 이후 〈회오의 광명〉이 상영되는데도 대장은 퇴장하지 않고 영화에 대한 열변의 설명을 하고 이에 관객은 박수갈채를 보내었다고 한다. 같은 신문 1923년 7월 22일 담양에서의 상영회를 전하는 기사에서는 박봉삼과 김연호를 번사라고 소개하고 있어 영화상영 중 통영청년단원에 의한 설명이 있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영화를 보지 않은 관객을 대상으로 영화상영 전, 영화 개요를 설명하는 전설(前說)이 있었으며 상영 중 설명은 열변이라고 표현되고 설명에 대한 관객의 박수가 있었다는 것에서 단순히 설명은 영화의 이해를 돕는 보조적 역할에 머물지 않고 두드러지게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는 같은 시기 영화관에서, 관객의 영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보조적 역할에 그치지 않고 전설을 하고 열변을 토하며 배우의 연기도 흥내 내는 등 두드러지게 존재한 번사의 역할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³⁴⁾ 직전에 언급한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통영청년단 측의 허남식과 손상린을 악사라고 소개하고 있어 영화상영 중 반주음악도 연주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는 영화상영을 전후로 해서 강연이나 공연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화상영 중에도 번사의 설명과 악사의 연주가 동시에 행해져 영화감상공간이 아니라 공연장으로서의 성격이 짙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통영청년단 상영장과 당시 상업 영화관의 상영환경이 유사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32) 《동아일보》, 1922년 5월 30일자.

33) 《동아일보》, 1923년 10월 30일자.

34) 이에 관해서는 우수진, 「무성영화 번사의 공연성과 대중연예의 형성」, 『한국극예술연구』 28(2008) 참조.

영화상영 중 경찰에 의해 상영이 중지되는 일도 있었다. 실제로 앞에서 살펴본 1921년 8월 1일자 《동아일보》의 기사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1921년 7월 27일 진주에서는 경관이 상영 중이던 영화 〈강정의 주인〉의 상영을 중지시켰다고 한다. 이후 다른 영화가 상영되어 한 영화의 연속적 상영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통영청년단의 상영회 공간에서는 다수의 영화가 상영되고 영화 이외의 다른 공연이 행해졌다. 경찰의 방해로 한 영화가 연속적으로 상영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어떠한 공연 없이 한 영화가 연속적으로 상영될 경우에 비해 이러한 상영환경에서 관객은 영화에 집중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영화를 보지 않은 관객을 대상으로 영화의 내용이 소개되어 이로 인해 정작 상영 중에 관객은 영화에 몰입하는 데 방해받았을 것이고 영화가 상영되는 도중 영화의 이해를 돕는 것을 넘어선 열변의 설명이 행해지고 반주음악도 연주되어 관객의 시선이나 집중력이 영화 이외의 것으로 분산될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농촌지역의 상영장은 야외였다. 이러한 공간에서 영사기 등의 영사장치는 영화관과 달리 영사실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관객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어 스크린에 보이는 영상이 만들어지는 것임을 지속적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고 정해진 좌석이 없어 관객은 주위를 돌아다니거나 타인과 뒤섞여 영화를 관람할 수 있어 영화에 몰입하기도 쉽지 않았다. 시설이 열악한 야외 상영장에서는 관객 수가 보통은 500-600명이고 1,000명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어서 뒷자리의 관객들은 스크린의 영상이 잘 보이지도 않았을 것이다.

영화에 집중할 수 없고 스크린 속 영상이 만들어지는 것임을 지속적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관객은 영화 속 가상세계를 실제적인 것으로 느끼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보다는 장면, 장면에만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나 순간순간 공연이나 해설에 더욱 집중하고 주위 사람들과 웃고 떠들면서 영화 속 사건 전개를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컸다.

일본에서는 교육과 교화를 목적으로 한 교육영화가 언론사, 교육당국에 의해 1920-1930년대에 본격적으로 영화관이 아닌 학교 등의 장소에서 상영되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교사 등에 의한 영화 설명이 상영 전, 상영 중 금지되었으며 영화상영 시, 영화상영 전후 음악연주 등의 공연은 일절 행해지지 않았다. 영화는 교실, 강당 등 실내에서 상영되었으며 암실장치를 설치하고 좌석 간 거리를 유지하게 하였다.

아동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지 않게 해 조용히 영화에만 집중하게 하고 영화를 실제적·중립적 것으로 감각하게 한 것이다.³⁵⁾ 교육과 교화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관객의 영화감상 방해요소를 철저히 배제한 일본의 교육영화 상영환경과 통영청년단의 상영환경은 차이가 컸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차이는 제국과 식민지, 국가와 민간 사이 자본, 인력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겠지만, 이러한 상영환경의 차이를 통해서도 통영청년단 영사회에서 교육, 교화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VII. 관객의 영화관람

이상에서 살펴본 상영환경을 통해 관객은 영화 속의 세계에서 구현되고 있는 교육사상의 고취나 문화수준의 재고와 관련된 질서, 이데올로기를 실제적이거나 중립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고 따라서 영화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수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동아일보》는 1921년 9월 11일자 기사에 통영청년단의 1921년 9월 9일 종로청년회관에서 열린 순회상영 풍경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먼저 조선청년연합회 집행위원장 오상근 씨가 지방에 있는 청년단체로서 특히 교육을 위하여 전국을 순회하는 그들의 의기를 찬양하고 더욱 일반의 동정을 비는 말로 개회사를 마치고 그 청년단원 중에서 그 단체의 취지 설명이 있은 후 [...] 구미의 실사정을 소개하는데, 미국 부인의 참정 시위운동의 행렬과 쾌활한 남녀의 운동하는 모습도 있고 혹은 인도의 토인의 코끼리 행렬과 꽃같이 아름다운 블란서 미인이 붉은 입술, 흰 이로 다정한 미소를 띄이고 나타날 때 청중의 박수는 그치지 아니하더니 끝으로 미국 전 대통령 윌슨 씨와 현 대통령 하딩 씨의 얼굴이 나타나 청중의 환영하는 박수가 일어났다. [...] 끝으로는 미국 어떠한 농촌에서 순결하게 지라난 아름다운 처녀가 화류계에 출입하는 청년을 구제하고자 그 청년과 교제하기를 시작하여 처음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언뜻 뜨거운 연애가 되었으므로 방탕에

35) 일본 교육영화상영에 관해서는 西川幸次郎, 『映畫教育叢書-映畫學習方法論』(生美堂, 1936), 28쪽; 文部省, 『學生生活の娛樂に關する調査』(文部省, 1935) 34쪽, 53쪽, 57쪽; 關野嘉雄·下野宗逸, 『講堂映畫方法論』(成美堂, 1938), 102-118쪽 참조.

빠져 있는 청년이 때때로 처녀의 창밑에서 회개하는 눈물을 뿌리다가 처녀의 부친의 오해를 받아 쫓기어나서 숙모의 집에 가서 외로운 생활을 하다가 다시 청년을 만나 애인의 격려를 입어 수천의 생명을 불속에서 구원한 〈회오의 광명〉이라는 사진이 있어서 흥미진진한 속에 동 11시경에 마쳤다.

다른 상영회에서처럼 강연 이후 본격적으로 영화가 상영되었는데 처음에는 짧은 실사영화들이 주로 상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참정 시위운동이나 미국 대통령이 등장하는 짧은 실사영화들은 교육사상 고취나 문화수준 재고를 위한 영화였겠지만 이때 관객은 조용히 집중해서 청년단의 상영 목적에 맞게 영화를 이해하며 관람하는 것이 아니었다. 개개의 장면을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클로즈업되거나 자신이 아는 미국 대통령이 등장하는 장면에 대해 박수를 치는 등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관람하였다.

이후 〈회오의 광명〉이 상영되었는데, 《조선일보》 1923년 9월 22일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활동사진대 단원이 이 영화를 문화, 교육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점에서도 이 영화의 내용은 문화, 교육에 관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용되고 있는 기사 속의 관객은 교육을 목적으로 선택된 영화로서의 성격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인 주인공 청년의 자신의 과오에 대한 회개나 화재 구조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주로 ‘흥미진진한’ 사랑 이야기로 이 영화를 설명해, 교육영화보다는 로맨스 영화 정도로 영화를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영청년단에 의한 영사회 상영환경이, 영상이 만들어지는 방식을 은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2차 순회지역인 농촌지역의 관객은 영화 전체에 대한 이해도마저 상당히 떨어졌을 것이다. 당시 대부분의 농촌 주민들은 영화를 접한 경험이 별달리 없었기 때문이다. 1939년 발행된 『가정지우』 20호에서 안중화는 당시까지도 농민들은 영화를 접할 기회가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³⁶⁾ 『조선과 만주(朝鮮及滿洲)』 1940년 8월호에서는 1940년경까지 대부분의 영화관은 도시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설명해³⁷⁾ 역시 농촌 주민이 영화를 자주 접하기 어려웠음을 설명하고 있다.

36) 안중화, 「농촌인의 정신위안」, 『가정지우』 20(1939).

37) 辛島驍, 「映畫教育の施設を急げ」, 『朝鮮及滿洲』 1940-08(1940), 21쪽.

1931년 발행된 『조선의 교육연구(朝鮮の教育研究)』라는 잡지에서도 조선인 학생을 상대로 교육영화를 상영할 때에는 클로즈업, 편집 등에 관해 설명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 역시 당시 조선인 학생들이 영화를 별달리 접해보지 못해 영화를 제대로 감상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³⁸⁾ 조선인 학생이 일반적으로 영화를 접해보지 못해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농촌 주민 역시 그와는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동아일보》 1922년 6월 10일 기사에서는 한산도에서 통영청년단의 영사회를 전하고 있는데 이곳의 주민은 영화를 접한 적이 없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농촌지역 영사회에서의 구체적인 관람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관객은 영화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실체를 영상으로 재현하거나 사진을 움직이게 하는 영사기술에만 호기심을 갖고 매혹될 가능성이 크다. 같은 맥락에서 톱거닝은 영화가 최초로 상영된 그랑카페에서 영화를 접해보지 못한 관객은 영화 속 돌진하는 기차를 현실인 것으로 오인해 공포에 떨었던 것이 아니라 스틸 사진을 움직이게 하는 영화적 장치에 매혹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³⁹⁾ 통영군 용남면이나 한산도에서의 영사회에서는 각각 1,000명, 1,500명이 넘는 관객이 모여들어 영화를 관람하였는데 영사 시설이 열악한 야외 상영회에서 앞자리 일부 관객을 제외하고는 상당수의 관객은 스크린의 영상을 명확하게 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영사회가 진행되고 몇 시간 동안 관객이 영화를 관람했다는 것은 관객이 영화에 집중해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영상과 그것을 만들어내는 장치가 신기해서 구경하는 방식으로 영화를 보았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통영청년단 영사회는 아니지만 1935년에 연재된 이상의 수필 〈산촌여정(山村旅程)〉에 묘사된 농촌 관객들도 영화가 만들어내는 환영에 봉합되지 못한 채 사진을 움직이게 하는 신기한 영사기술에 매료되어 영상을 바라보았다.⁴⁰⁾ 이 수필에서 영화를 접해보지 못했던 농촌 관객은 영사되

38) 大石連平, 「映畫と課外教育」, 『朝鮮の教育研究』 1931-8(1931), 61쪽.

39) Tom Gunning, "An aesthetic of Astonishment: Early Film And The (In)Credulous Spectator," *Art and Text* 34(1989).

40) 〈산촌여정〉에 묘사된 농촌 야외 상영회를 분석한 연구로 윌터 K. 류, 「이상의 산촌여정, 성천기행 중의 몇 절에 나타는 활동사진과 공동체적 동일시」, 『트랜스: 영상문화저널』(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2000)과 정충실, 「식민지 조선의 영화관람-상설영화관, 그리고 비상설영화관이라는 공존장」(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 논문, 2009)이 있다.

는 부산과 평양의 모습에 박수갈채를 보내었다고 하는데 이 역시 부산과 평양의 모습을 평안도의 한 농촌에서 재생해내는 영사기술이 신기해서였다. 계속해서 〈산촌여정〉에서는 이러한 관객들이 영화에 대해 동화적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나 영화를 신기한 오랑캐의 요술이라고 생각한다고 표현하였는데, 이 부분 역시 조선의 농촌 관객은 영화 자체가 아닌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어내는 마법과 같은 영사기술에 매료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통영청년단의 영사회 활동과 비슷한 시기에 강원도청이 개최한 철원에서 영사회에서는 간토(關東) 대지진으로 인한 도교의 피해 상황에 관한 영화를 상영했다. 여기서 관객은 영화를 보면서 슬픔이나 잔혹함을 느낀 것이 아니라 앉아서 도교를 구경하도록 해준 것에 감사함을 느꼈다고 한다.⁴¹⁾ 이 역시 관객이 영화적 환영에 봉합되는 것이 아니라 도교의 풍경을 철원에서 감상하게 한 영사기술에 매료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도시의 관객은 영화를 청년단의 영화상영 목적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영화를 즐기고 농촌의 관객은 영화를 접해본 경험이 별달리 없어 영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영사기술에 매혹된다면 통영청년단의 활동사진대의 영화를 통한 미풍양속 권장, 교육사상 고취와 같은 교육, 교화의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영화를 통한 대중의 교육, 교화라는 통영청년단이 의도한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관람공간은 밤의 어둠 속에서 식민지민이 집단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이었다. 이곳에서 청년단의 연설이 공공연히 행해지기도 하였다. 경찰에 의한 잦은 영사 중지 명령으로 관객들은 일제에 대한 저항감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어둠 속에서 집합하여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 저항의 공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존했기 때문에 일제는 영화상영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감시했는데 이와 관련해 《동아일보》 1922년 4월 29일 기사에서는 1921년의 활동은 “무단히 당국의 질시를 받아” 고통스러웠다고 밝히고 있다. 이 외에도 같은 신문 1921년 8월 1일에 의하면 “풍속을 괴란케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강정의 주인〉 상영을 금지하고 있는데, 교육 목적으로 선택된 영화가 특별히 풍속을 해칠 이유도 없으며 다른 상영장에서는 별 무리 없이 상영되었기

41) 재철원 기사, 앞의 글, 90쪽.

때문에 상영 영화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두운 영사회 공간에 식민지민이 집합하여 감시, 통제에서 벗어나고 민족적 저항공간으로 변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통영청년단의 영사회 공간에서 관객, 특히 농촌 주민은 이전에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기술과 대중문화를 접해본다는 발미로 밤늦게까지 이웃들과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다. 영사회는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주로 상영되었기에 암실을 갖출 수 없어 영화는 밤에 상영될 수밖에 없었고 3-4시간의 상영 후 자정이나 되어야 폐회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동아일보》 1923년 9월 22일 기사에 의하면 포항에서의 상영회에서는 오후 8시 30분에 영사회를 시작하였다. 《동아일보》 1921년 9월 20일 기사에 의하면 청주에서는 자정 12시에 폐회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당시 사회 관념상 밤늦은 시간의 외출, 특히 여성의 외출은 자유롭지 않았는데⁴²⁾ 《동아일보》 1922년 6월 10일 기사에는 한산도의 영사회에서 부인이 다수 입장해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밤늦은 시간 부인의 외출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영사회에서 영화관람을 목적으로 부인의 외출이 허락된 것이 특별한 일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동아일보》 1921년 9월 20일 기사에서는 청주 영사회에 남녀 관객이 많이 입장해 있고, 특히 여학교 학생이 다수 입장하였다고 설명해 역시 이곳에서도 밤늦은 시간에 여성이 자유롭게 상영회에 입장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통영청년단의 영사회에서 여성 관객은 사회적으로 허락되지 않는 야간 외출이라는 자유도 경험할 수 있었던 셈이다. 청년단에게 영화는 교화의 수단이고 영사회는 선전의 장이었겠지만 마을 주민의 입장에서는 새롭고 신기한 기술을 접하고 밤늦은 시간 마을 사람이 모여 자유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오락, 축제의 공간이었던 것이다.

42) 《동아일보》 1921년 6월 4일 기사에서는 당시 여성의 외출 자체가 자유롭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VIII. 맺음말

1921년부터 1923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순회영사회를 개최해 전 조선에서 화제가 되고 많은 효과를 낳았던 통영청년단 활동사진대는 1924년 이후에는 활동에 대한 별다른 기사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이후에는 활동을 지속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활동사진대의 활동이 지속되지 못한 것은 통영청년단의 전체적인 사업이 1924년 이후 소강상태에 접어들거나 조선 전체에서도 엘리트 중심의 청년단 활동이 쇠퇴한 것에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⁴³⁾ 그러나 단 2-3년간의 활동에도 한 중소도시의 청년단이 일제의 탄압과 감시 속에서 전국적으로 순회영사회를 개최하고 이상에서 살펴본 효과를 낳았던 것만으로도 영화사나 민족운동사에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통영청년단은 순회영사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당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조선 청년단의 사업을 선전하고 각 지방의 민간, 민족 단체가 교류하게 하고 그들을 주민에게 홍보시켜주었으며, 주민들이 직접 민족 교육기관 설립에 참여하도록 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민족운동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의 물리적이고 격렬한 충돌방식이 아니라 대중문화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제에 대한 저항효과를 거둔 것이라 할 수 있다.

통영청년단이 영사회 개최를 통해 이상의 효과를 거두었지만 영화를 이용한 대중에 대한 교화, 교육의 효과는 크지 않았다. 이는 영화 속 가상세계를 실제적이고 중립적인 것으로 감각하게 하는 상영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관객의 영화 이해도가 낮았던 것에 기인한다. 대신 관객은 영화상영장을 교육의 장이 아니라 늦은 밤에 마을 사람과 모여 자유를 만끽하고 새로운 기술을 경험하는 축제, 오락의 장으로 전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유(appropriation)의 가능성 때문에 영화를 비롯한 대중문화, 미디어 연구에서는 제작자나 텍스트 이외에도 수용환경, 기술, 관객·수용자의 수용방식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영사회에서 일반 대중인 관객은 통영청년단의 의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영화를 관람했기 때문에 민족운동에서 엘리트와 대중은 하나로 완전히 통일된 것이 아니라 균열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43) 문화재청, 앞의 책, 28쪽.

마지막으로 이 글은 식민지 조선에서 대중문화에 관한 자료, 그중에서도 수용 양상에 관한 1차 자료가 극히 드물고 지방과 관련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관객의 관람 양상에 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새로운 자료의 발굴 등을 통해서 관람 양상을 더욱 상세히 서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자료

『가정지우』.

『개벽』.

『별건곤』.

《동아일보》.

《매일신보》.

《조선일보》.

關野嘉雄·下野宗逸, 『講堂映畫方法論』. 東京: 成美堂, 1938.

『キネマ旬報』.

文部省, 『學生生活の娛樂に關する調査』. 東京: 文部省, 1935.

山本精一, 『慶南統營郡案内』. 統營: 南鮮日報統營支局, 1915.

西川幸次朗, 『映畫教育叢書-映畫學習方法論』. 東京: 生美堂, 1936.

映畫通信社, 『映畫年鑑』. 東京: 映畫通信社, 1928.

『朝鮮及滿州』.

『朝鮮の教育研究』.

『朝鮮總督府統計年譜』.

2. 논저

김상환, 「1920년대 통영지역 청년운동과 김기정 징토운동」. 『역사와 경계』 91, 2014.

김승, 「1920년대 경남지역 청년단체의 조직과 활동: 청년연맹 결성을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 2, 1996.

김일수, 「1920년대 경북지역 청년운동」. 『한국근현대 청년운동사』, 풀빛, 1995.

김정민, 「1920년대 초반 조선총독부의 활동사진에 대한 인식과 활용에 대하여: 영화의 적극적 이용 정책의 성립과정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27, 2008.

김준, 『전형화 과정을 통해서 본 이주민의 거주공간에 관한 연구: 일본인 통영지역 이주 어촌 사례를 대상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문화재청, 『구통영청년단회관: 기록화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04.

박철하, 「청년운동」. 『한국사』 49, 국사편찬위원회, 2001.

박형균, 『통영사연구회 4집-통영안내』. 통영사연구회, 2008.

복환모, 「1920년대 조선총독부 활동사진반의 역할에 관한 연구」. 『영화연구』 24, 2004.

- 변재관, 「1930년대 전후 프롤레타리아 영화 활동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우수진, 「무성영화 변사의 공연성과 대중연예의 형성」. 『한국극예술연구』 28, 2008.
- 이애숙, 「1920년대 전남 광주 지방의 청년 운동」. 『한국근현대 청년운동사』, 풀빛, 1995.
- 이효인, 「일제하 카프 영화인의 전향논리연구」. 『영화연구』 45, 2010.
- 윌터 K. 류, 「이상의 산촌여정, 성천기행 중의 몇 절에 나타는 활동사진과 공동체적 동일시」. 『트랜스: 영상문화저널』,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2000.
- 정충실, 「식민지 조선의 영화관람 - 상설영화관, 그리고 비상설영화관이라는 공론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 논문, 2009.
- 충무시지편찬위원회, 『충무시지』. 충무시지편찬위원회, 1987.
- 통영시사편찬위원회, 『통영시지』 상. 통영시사편찬위원회, 1999.
- 함충범, 「중일전쟁 이후 식민지 조선에서 뉴스영화 연구(1923-1941)」. 『한국민족문화』 49, 2013.
- Baudry J. L., "Ideological Effect of the Basic Cinematographic Apparatus," *Film Quarterly* 28-2, 1975.
- Gunning, Tom, "An aesthetic of Astonishment: Early Film And The (In)Credulous Spectator." *Art and Text* 34, 1989.

국 문 요 약

지금까지 식민지 조선의 영화사에 관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행해져 왔지만 총독부의 순회 영화상영, 카프 활동 정도를 제외하고는 도시의 영화관 이외에 비상업적 목적의 영화상영과 영화관람에 관한 연구는 별달리 행해지지 않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다양한 비상업 목적의 영화상영회 중 통영청년단 활동사진대의 순회영사회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청년단체 등의 민족운동에 관한 연구에서는 영화 등의 대중문화 활용에 대해 별달리 언급하지 않아왔다는 점에서도 통영청년단의 순회영사회를 다루는 것은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 글에서는 통영청년단이 조직되고 영화를 이용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서 당시 통영의 상황에 대해서 살피고 통영청년단과 활동사진대가 어떻게 발족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한다. 이후 활동사진대의 활동과 그로 인한 효과를 살펴보는 데 전국적 순회영사회의 개최로 인해 청년단의 사업이 전국적으로 선전되고 각 지역의 민간단체가 연결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한다. 이상의 효과가 있었음에도 활동사진대의 기본적인 활동 목적은 대중의 교육과 교화에 있다는 것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상영조건과 관객의 관람 양상을 통해 활동사진대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었나를 살펴본다.

투고일 2015. 3. 20.

심사일 2015. 4. 16.

게재 확정일 2015. 5. 14.

주제어(keyword) 순회상영(film screening tour), 통영청년단 활동사진대(Motion picture Group of Tongyeong Youth Corps), 대중 교화(reforming the public), 선전(propagation), 영화관람(viewing film)

Abstracts

The Tongyeong Youth Corps's Film Screening Tour and Its Audiences' Viewing(1921-1923)

Jeong, Choong-sil

Considerable research exists on the film history of the colony of Joseon. However, specific research has not been conducted on non-commercial film screenings and viewings, except those in urban movie theaters. One exception is a research work conducted on a film screening tour organized by the Japanese Governor General of Korea. To rectify this issue, this study investigates a film screening tour by the Motion picture Group of Tongyeong Youth Corps, which included various non-commercial film screenings. This study of the Tongyeong Youth Corps' film screening tour is particularly significant, as other studies of national youth organization movements have not particularly mentioned their use of popular culture mediums, such as films.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s the particular situation of Tongyeong, and uses this analysis as the contextual background for the organization of the Tongyeong Youth Corps and its use of films. It then explains how the Tongyeong Youth Corps and the Motion Picture Group was launched. Specific activities of the Motion Picture Group and their subsequent effects are then examined. For example, it explains that hosting the national film screening tour had various effects, such as nationally publicizing the business of the Youth Corps and connecting private organizations within each region. This study determines that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Motion Picture Group's activities lay in educating and reforming the public, regardless of the aforementioned effects. Finally, it analyses whether the Motion Picture Group's purpose was achieved by studying screening conditions and audiences' viewing aspects.